

# 보성군, 메타세쿼이아 길을 달리는 5월 2일 '제21회 보성녹차마라톤대회' 대한육상연맹 공인코스 '보성녹차마라톤' 참가자 모집

보성군은 오는 5월 2일 제21회 보성녹차마라톤대회가 보성체육공원 내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3월 30일까지 보성녹차마라톤대회 전용 누리집(<http://mara1080.com>)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대회는 보성군체육회가 주최하고 보성군마라톤연합회와 전국마라톤협회가 함께 주관한다.

Full, Half, 10km, 5km 순으로 진행되는 보성녹차마라톤대회는 대한육상경기연맹 공인코스이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과 완만한 경사로 이뤄져 있어 마라토너들에게 최고의 코스로 평평이 나 있다.

대회 참가자들에게는 기념품으로 티셔츠가 제공되며, 경품으로는 러닝화를 비롯

해 보성말차 등 보성의 특산품이 마련돼 있다.

또한, 이날 참가자들은 대회 당일 보성군이 운영하는 울포해수욕장센터 방문 시 배번호를 제시하면 1인 5천 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8,000여 명이 넘는 동호인과 더불어 전설의 마라토너 이봉주, MBN <뛰어라 산다> 출연진 선, 이영표, 양세형, 배성재, 허재 등이 참여했으며, 그 외에도 배우 송일국과 삼형제 대한-민국-만세가 함께 달려 대회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보성녹차마라톤대회 역대 최고의 동호인이 참가해 대회의 명성이 더 높아졌다."라며 "올해도 성공적



인 대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통 및 안전 관리 대책에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보성/김운기 기자

광양시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암 조기 발견을 위해 만 40세 이상 광양시민(198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전립선-난소 암표지자 무료 검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 암검진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전립선암과 난소암에 대한 검진 공백을 보완하고, 조기 진단을 통해 중증 질환으로의 진행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사 기간은 2026년 3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남성 400명, 여성 400명 등

광양시, 만 40세 이상 시민 대상 전립선-난소 암표지자 무료 검사 3월 3일부터 선착순 800명, 'MY광양' 앱 통해 예약 접수

총 8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은 'MY광양' 앱을 통한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매월 초 당일 예약이 개시되며, 3월 예약은 3월 3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하루 10명 한정으로 접수하며, 신청 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예약자는 지정된 날짜에 신분증을 지참해 중마통합보건지소를 방문하면 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전립선암과 난소암은 국가 암검진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검진 공백 우려가 있으며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이라며 "이번 무료 검사를 통해 시민들이 부담 없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암을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검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출생보건과 임상병리실(☎061-797-4067, 4076)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신선호 기자

영암군은 오는 3월 3일부터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 외국인등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가가 출입국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들은 목포에 있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를 직접 방문해

영암군, 찾아가는 외국인등록 서비스 운영 외국인등록-기간연장-근무처 변경 업무 영암군청에서 처리

야 했다. 특히 영암군은 출장소와 거리가 멀어 왕복 이동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고, 농번기에는 농작업에도 차질이 생기는 등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영암군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와 협력해 계절근로자 관련 행정서비스를 지역에서 직접 제공하기로 했다. 앞으로 외국인등록은 영암군청 현장에서 처리되며, 체류기간 연장허가 및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또한 군청에서 공문으로 일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는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대부분의 행정절차를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농번기 인력 운용이 중요한 농가의 경우 행정 절차로 인한 작업 중단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미야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행정 간소화 조치는 농가와 계절근로자의 현장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출입국사무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농촌 인력난 해소와 행정 편의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장흥군 장흥문화예술회관이 2026년 공연예술 분야 공모사업 10건에 선정되며 총 3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번 공모에는 전남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국립국악원 등 관계 기관이 주관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먼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공연예술 지역 유동 지원사업'(문화체육관광부 주관)에 선정돼 1억 4천만 원을 확보했다. 해당 사업은 지리적 여건상 문화 접근

장흥군, 2026년 공연예술 공모사업 10건 선정 국비 3억 원 확보... 군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다양한 순수예술 공연을 유동·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전남문화재단의 '공연장 협력 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최고 지원액인 5천만 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공연예술단체와 공연장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공연장의 활성화와 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주요 공연은 ▲4월 뮤지컬 그놈은 예뻐다(세종공연예술센터) ▲5월 명품 마당놀이 신백파전(아름다운

우리문화) ▲7월 뮤지컬 연노운(창작집단 시엔) ▲8월 클래식 무곡(베라이어티뮤지그룹), 민속연희 판, 흥으로 잇는 세상(국립국악원) ▲9월 고성현 with 프렌즈-시간에 기대어, 창작마당극 봄여름가을겨울 그리고 다시 봄(문화공간예움) ▲10월 뮤지컬 노오란 샤쓰의 사나이(극예술창작집단 흥), 전통극 최진사대 셋째 딸 신랑찾기(꾸꾸는씨어터) ▲12월 모노창극 아비뎀(문화공간예움) 등이다. /장흥군 제공



## 함평군, '2026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축제관광부문 대상 수상

전라남도 함평군이 '2026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에서 축제관광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축제 콘텐츠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함평군은 "이날 오후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에서 함평군이 축제관광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사에는 강하춘 함평군 부군수와 (재)함평축제관광재단 임직원 등이 참석해 수상의 기쁨을 함께했다.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은 전국의 축제를 대상으로 ▲축제 경쟁력 ▲콘텐츠 우수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축제를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함평군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해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함평군은 지역의 고유한 자연·생태

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를 운영한 점과 체계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 지역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형 축제 모델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축제 방문객 중심의 프로그램 구성과 안전관리 체계 강화, 인근 상권과의 연계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군민과 함께 만들어 온 축제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색을 살린 경쟁력 있는 축제를 기획해 함평의 문화관광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평군은 사계절 특색 있는 축제를 운영해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함평/전광춘 기자

## 여권 발급 수수료 3월 1일부터 2천 원 인상

영광군민은 외교부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가 2천 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10년 유효기간 복수여권은 ▲58만 52천 원 ▲26만 49천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5년 유효기간 복수여권(미성년자·26면 기준) ▲만 8세 이상 41천 원 ▲만 8세 미만 32천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이후 발생한 제조 및 발급 원가 상승과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됐다. 여권 신청은 본인이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장, 수수료를 지참해 군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은 반드시 함께 제

출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군은 군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평일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군민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8시까지 야간 여권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야간 여권 민원실은 여권 접수와 교부 등 관련 민원 업무를 처리하여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여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71세 이상 어르신 ▲7세 이하 영유아 동반 보호자 ▲장애인 ▲임산부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여권 무료 등기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방문 없이 자택에서 여권을 수령할 수 있다. 영광/이현식 기자

